

결 정

2018 - 4028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1.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
2.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

주 문

스포츠동아(sports.donga.com) 2018년 2월 12일자(이하 캡처시각) 「형수」 제목의 광고, 스포츠월드(sportsworldi.com) 2월 12일자 「도련님이랑 둘이 있을때가 젤루좋아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'경고' 한다.

이 유

①스포츠동아



<18. 2. 12. 19:43 캡처>

<<http://sports.donga.com/NewsStand/3/all/20180212/88639177/1>>

②스포츠월드



<18. 2. 12. 19:50 캡처>

<<http://www.sportsworldi.com/content/html/2018/02/11/20180211000875.html?OutUrl=NS>>

스포츠동아 스포츠월드는 웹툰 ‘형수’를 광고했는데 이 웹툰 무료보기에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성적(性的) 관계를 외설스러운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. 선정적이고 음란한 웹툰이 물론 맛보기 형태로 노출됐다고는 하지만 성인 인증장치가 없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.

이러한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참고: 해당사이트

<http://me.co.kr/sub/freeview_toon.php?seqNum=14244&itemNo=700&openv=free>



2018년 3월 14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용담	김용담
위원	정승호	정승호
	장명국	장명국
	박재현	박재현
	장인철	장인철
	김규식	김규식
	강희	강희
	하윤수	하윤수
	김영모	김영모
	박미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.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, 추악, 또는
잔인한 내용